

▶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 26일 상영작 '매기스 플랜'·'재키'



'재키' 스틸컷



'매기스 플랜' 스틸컷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사랑이야기 유쾌하게 풀어내

대통령의 부인 시점에서 바라본 케네디 암살사건

-매기스 플랜-

-재키-

전주디지털독립영화관(전주영화제작소, 4층)은 예측 불가능하고 복잡한 사랑을 유쾌하게 그린 <매기스 플랜>과 역사상 가장 유명한 퍼스트 레이디 재클린 케네디의 짧지만 빛났던 순간을 담은 <재키>를 오는 26일 상영한다.

관객 설문조사 결과 반영 작인 <매기스 플랜>은 레베카 밀러가 연출한 작품이다.

영화는 감성과 뉴요커 매기가 소설가를 꿈꾸는 대학교수 존을 만나 사랑에 빠져 결혼을 하지만 그의 변화는 모습에 뜻밖의 계획을 세우게 되는 내용을 그린다.

주위에서 만날 수 있는 캐릭터들을 통해 현대인들의 삶과 내면을 투영해냄으로써 많은 관객들의 공감을 얻을 것으로 보인다.

'비포 선라이즈' 시리즈의 에단 호크, 2015 아카데미 여우주연상에 빛나는 줄리안 무어, '프란시스 하'의 그레타 거윅과 같이 출중한 연기로 인정받은 배우들이 출연하여 기대를 모은다.

영화 <재키>는 미국 케네디 전 대통령의 부인 재클린 케네디의 시점에서

케네디 대통령 암살 사건 이후부터 세기의 장례식이 열린던 날까지를 그린 작품이다.

<블랙 스완>의 대린 아로노프스키 감독이 제작 총괄을 맡아 나탈리 포트만과 두 번째 작업을 하게 돼 화제를 모으고 있다. <재키>는 제73회 베니스영화제에 초청돼 각본상을 수상했으며 제22회 크리틱스 초이스 시상식에서 의상상·분장상을 수상했다.

재클린 케네디역을 맡은 나탈리 포트만은 <재키>를 통해 '블랙 스완'을 넘어서는 연기를 보여줬다는 평을 받으며 오늘 2월에 열린 미국 아카데미 시상식의 강력한 여우주연상 후보로 거론되고 있다. 이미 해외 유수 영화제에서 수상 및 노미네이트 되었으며 가디언·인디와이어·버라이어티·롤링스톤·허핑턴포스트 등 세계 유력 매체가 선정한 '2016년 올해의 영화 TOP 10'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관람료는 일반 5,000원, 후원회원 4,000원
**문의 063-231-3377.

/정해은 기자



박종은 시인 김정길 수필가 김한창 소설가

전북문인협, 전북문학상 수상자 선정

박종은(시)·김정길(수필)·김한창(소설) 작가가 제28회 전북문학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전북문인협회는 우수한 창작활동으로 지역문학 발전에 기여한 문인들에게 최고의 영예상인 전북문학상을 수여해 오고 있다.

박종은 시인은 미당문학회를 창립하고 연2회 '미당문학' 지발간을 주도하는 등 지역문학발전을 도모했다는 평가를 받았다.

박 작가는 고창 출생으로 고창문인협회 2·3대 지부장을 역임했다. 저서로는 세월 위에 띄우는 빈 배, 운문으로 일어서는 작은 전설, 미래가 보이는 겨울 등 7권의 시집이 있다. 영랑문학상·공간시인협회상·고창문학상·대한문학상을 수상한 바 있다.

김정길 수필가는 전북문인협회 부회장과 영호남수필문학협회 전북회장을 맡아 영호남수필의 지역교류에 이바지한다는 인정을 받았다.

김 작가는 입실 출신으로 행촌수필문학회 회장을 역임했다. 어머니의 가슴앓이, 지구를 누비는 남자, 내 마음의 뒷밭 등 4권의 수필집을 펴냈으며, 입실문학상·행촌수필문학상·전북수필문학상을 수상했다.

김한창 소설가는 몽골문학 레지던트 소설작가로 선정되어 몽골 울란바타르대학 연구교수로 한국문학을 강의하고 있으며, 2012년부터 작년까지 한·몽골 문학 교류세미나를 통해 전북문인들의 해외문학참여의 길을 열었다는 평을 얻었다.

김 작가는 전북소설가협회 회장을 역임했다. 장편소설 바빌로니움을 출간했으며, 노천문학상 소설 분상·전북문학상·몽골문학상을 수상했다.

심사에는 심사위원장 김학 수필가를 비롯해 소재호 시인 전정구 평론가 등 3명이 참여했다.

시상은 오는 2월 4일 오후 5시 바울문화센터에서 열리며, 수상자에게는 200만원의 창작지원금이 각기 주어진다.

/정해은 기자

▶ 공연 & 전시 ◀

전주시립교향악단, 오늘 저녁 신년음악회 개최

전주시립교향악단은 24일 오후 7시30분 한국소리문화의전당 연지홀에서 '2017 신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제 218회 정기연주회를 겸해 열리는 이날 음악회에선 최희준 전주시립교향악단 상임지휘자의 지휘로 피아니스트 조재혁·바리톤 우후호가 협연을 펼친다.

피아니스트 조재혁은 감성과 지성을 겸비한 물론 흠 잡을 데 없는 테크닉과 구성력, 뛰어난 통찰력과 과장 없는 섬세함으로 완성도의 극치를 추구하는 연주자로 정평이 나있다.

연주 외에 해설과 강의로도 인정을 받고 있는 조재혁은 다양한 교육기관에 초청되어 특별강의와 마스터클래스를 가지고 있다. 2017년에는 예술의전당 <11시콘서트>의 새로운 호스트를 맡아 활약할 예정이다.

바리톤 우후호는 한국·이탈리아 외 유럽을 오가며 오페라 전문가로서 왕성한 활동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코플랜드의 '보통 사람들을 위한 광파르'·발레모 음악 로레오 중 '호타운', 거슈윈의 '렘소디 인 블루', 비제의 '카르멘 서곡'·'오페라 카르멘 중 '투우사의 노래', 베르디의 '오페라 라 트라비아타 중 '프로벤자 내 고향으로', 조두남의 '산촌', 드보르작의 교향곡 9번 '신세계로부터' 등의 곡들을 선보일 예정이다.

**공연티켓은 S석(1층)7,000원 A석(2층)5,000원.
**문의 063-281-2748.

/정해은 기자

술테마박물관, 설 명절 정상 개관

완주군, 먹거리·즐길거리 마련

설 연휴 기간에도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이 정상 개관된다.

23일 완주군은 설날 당일인 28일을 제외하고 설명절 기간 이달 27일부터 30일까지 관광객들이 이용하는 데 불편이 없도록 박물관을 정상 개관한다고 밝혔다.

경각산과 구이저수지가 맞닿아 있어 수려한 경관을 담고 있는 대한민국 술테마박물관은 술과 관련된 유물 5만5000여점과 수장형 유물전시관, 입체영상관 등이 들어서 있다.

제1전시관과 대한민국 술의 역사 문화관, 전통주 르네상스관, 세계의 술을 포함한 제2전시관 등 특별한 전시공간으로 구성

돼 있다.

또한 발효체험, 교육, 제조, 시음 등을 한 곳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해 관광객들에게 술에 대한 전통문화와 술 문화의 가치를 배워 볼 수 있는 시설로 꾸며졌다.

특히 설 명절기간에는 단발발효, 버터 초코쿠키, 누룩 피자 및 아이들이 좋아하는 영화가 시간대별로 상영되어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도록 준비돼 있다.

체험신청은 오는 27일 오후3시 이전까지 가능하며, 술박물관(063-290-3842~7)로 전화하면 된다.

김재열 관광체육과장은 "설연휴 모처럼 고향을 찾는 가족들과 함께 완주지역의 대표적인 명소에서 즐거운 추억을 만들어 가면 좋겠다"고 말했다. /완주=이종복 기자

순창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공모사업 선정

드림필 오케스트라

순창군이 올해도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 지원사업에 선정돼 군민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이번에 선정된 상주단체는 (사)드림필 오케스트라로 지난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오케스트라 음악을 선사해 좋은 반응을 얻은 단체다.

공연장 상주단체 육성지원 공모사업은 전북문화관광재단에서 주관하는 사업으로 공연장과 공연예술단체간 상생협력을 통해 안정적인 환경속에서 예술적 창작역량을 강화하고 공연장의 운영활성화를 통해 군민의 문화향유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사업이다.

군은 이번 사업 선정으로 (사)드림필 오케스트라와 협의회 연간 6회 이상의 오케스트라 공연과 청소년 공연 프로그램을



운영할 계획이다. 군은 지역에 영화관과 미술관을 제외하면 상설 문화공연장이 많지 않아 이번 사업 선정이 군민들에게 수준 높은 음악공연 관람 기회에 큰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군 관계자는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상주단체 육성지원사업에 선정돼 기쁘다"며 "군민들의 음악공연을 해소할 수 있도록 내실 있게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순창=이양원 기자

전주매일 홈페이지 www.jjmaeil.com

따별로 풀어보는 오늘의 운세

홍주미 백운철학연구소 소장 H.P: 010-6890-1468, 홈페이지: http://www.philsilab.com/

<2017년 1월 24일>

<p>▷쥐띠 48년생: 구설수가 따르거나 시비를 거는 사람이 있으니 현명한 대처가 필요하다. 60년생: 손재수가 따르는 운이나 손재 후에는 기쁨이 있겠다. 72년생: 어려운 일이 있어도 도와주는 사람이 나타나는 운이다. 84년생: 일의 능률이 올라 능력을 인정받는 운이나 적극 진행하라.</p>	<p>▷소띠 49년생: 금전운도 있으며 식욕이 따르는 운이나 숨은 근심이 생기는 운이다. 61년생: 다른 사람과 신경전이 생기는 운이나 주의가 필요하다. 73년생: 좋은 일하고 원망을 사는 격이나 나서지 말고 자중하라. 85년생: 정신적으로 스트레스가 심한 운이다.</p>	<p>▷호랑이띠 50년생: 금전적으로 손해가 따르니 다른 사람의 말에 현혹되지 말고 중심을 잡아라. 62년생: 문서를 주고받기에 좋은 운이다. 74년생: 작은 일에 대한 결과는 좋으나 욕심을 부리면 화가 미친다. 86년생: 익숙한 일에 대해서도 실수를 범할 수 있는 운.</p>	<p>▷토끼띠 51년생: 동기반이나 다른 사람으로 인해 좋은 일이 생기는 운이다. 63년생: 급하게 서두를수록 점점 멀어진다. 75년생: 사소한 일에도 예민해질 수 있는 운이나 풀기 쉬운 운이다. 87년생: 지나친 것은 모자란 것만 못한 법이다.</p>
<p>▷용띠 52년생: 어려움이 있어도 솜아날 기회가 생긴다. 64년생: 일의 능률이 인정받을 수 있는 운이나 정작 본인은 흠족하지 못하니 욕심을 버려라. 76년생: 기쁨이 가득했던 사람은 슬픔이 도래하는 운이다. 미리 대비하라. 88년생: 성실함을 잃지 않는다면 좋은 결과가 있을 것이다.</p>	<p>▷뱀띠 53년생: 타인과의 불화가 예상되는 운. 65년생: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힘든 운이나 매사에 주의를 기울여라. 77년생: 모든 화는 지나친 욕심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기억하라. 89년생: 중요한 약속이나 일은 다음으로 미루는 것이 좋겠다.</p>	<p>▷말띠 54년생: 결과가 불확실한 일에 매달리지 마라. 66년생: 귀인의 도움이 따르니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78년생: 다른 사람과 구설수, 시비수가 따르는 운. 90년생: 하고자 하는 일이 있다면 적극적으로 행동하라.</p>	<p>▷양띠 55년생: 아끼려다가 인심을 잃으니 먼저 내보내면 후에 돌려받게 될 것이다. 67년생: 횡재를 바라면 재난이 발생한다. 79년생: 급하게 생각하고 서두르면 발이 나는 운이다. 급할수록 돌아가라. 91년생: 원행은 불리하나 그 외의 것에는 좋은 운이니 열심히 노력하라.</p>
<p>▷원숭이띠 56년생: 하고자 하는 일을 능동적으로 수행하라. 68년생: 다른 사람에게 원망을 살 수 있는 운이다. 80년생: 동기반으로 인해 시간 사고가 발생한다. 92년생: 지나치게 높게 목표를 잡으면 반에 도달하기도 전에 포기하게 되니 주의하라.</p>	<p>▷닭띠 57년생: 출타하면 좋은 일이 생긴다. 69년생: 하고자 하는 일에 골목이 따른다. 81년생: 다른 사람과 함께 움직이면 생각보다 일이 잘 풀린다. 93년생: 한 번에 큰 것을 얻으려고 하는 사람은 오히려 노력하는 사람은 좋은 결과가 따르는 운이다.</p>	<p>▷개띠 46년생: 지나친 욕심을 부리지 마라. 58년생: 자신을 낮추면 큰 복으로 돌아오는 운이니 겸손함을 잃지 마라. 70년생: 이성으로 인해 곤란한 일이 생길 수 있으니 이성을 주의하라. 82년생: 지금은 뒤로 물러서야 하는 운이다. 건강에도 주의하라.</p>	<p>▷돼지띠 47년생: 처음엔 좋지 않으나 나중에 이득이 되는 운이니 포기하지 말고 인내하라. 59년생: 지나친 의무는 실패를 부른다. 정도를 지켜야 하는 때. 71년생: 질병에 취약한 운이니 건강에 유의하고 섭생에 주의하라. 83년생: 일에 막힘이 생기니 욕심은 금물.</p>